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시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접한 우리들은 비할바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깊은 애도와 가장 진실로 되는 위문을 표시합니다.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그이께서는 조선식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위업에 한생의 정력을 바치시였으며 불멸의 역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십니다. 그이께서는 커다란 열정으로 두 나라 로동계급들끼리 친히 마련해주시고 키워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발전시키시였으며 중국지도자들과 두터운 우정을 맺으시고 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끊임없는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시였습니다.

중국당과 정부, 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대해 매우 비통해하고있으며 중국인민은 영원히 그이를 그리워할것입니다. 김정일동지는 비록 갑자기 서거하시었지만 그이께서는 영원히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살아계실것입니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의 유해를 받들고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조선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리라고 믿습니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았으며 교락을 같이하고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시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들은 쌍방의 공동의 노력밑에 중조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이 반드시 계속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인민은 앞으로 영원히 조선인민과 함께 서있을것입니다. 김정일동지는 영생불멸하실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2011년 12월 19일

배이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국가장의위원회

김 정 은 각 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서거하신것과 관련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와 인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로씨야에서는 김정일각하를 전통적인 로조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오신 친선적인 국가의 령도자로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와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이 로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 지도부에 의하여 계승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쌍무협조의 가일층의 발전과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호상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데 . 메 드 베 제 브

2011년 12월 19일

모스크바, 크렘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와 관련하여 발표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발표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을 19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발표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을 19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은 김정일령도자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시었다고 하면서 이는 《조선로동당과 혁명적 이념을 지키는 손실이며 조선인민과 온 겨레의 가장 큰 슬픔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고함은 조선이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할것을 요구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42년 2월 16일에 탄생하시었다. 그이께서는 1997년 10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시였으며 2010년 9월 28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또다시 추대되시였다.

이 나라의 《인민일보》, 중국중앙TV방송도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의 요지를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분에 떠는 삼천리강토, 하늘땅에 차넘치는 민족의 대슬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로동계급, 협동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 가장 비통하게 애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뜻밖에 잃은 민족의 대극상으로 하여 온 나라, 온 민족이 비분에 몸부림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100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알린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 12월 19일 낮 12시에 보도되였다.

청천벽력과 같은 민족대극상의 비보가 전해진 순간부터 삼천리강토는 크나큰 슬픔에 잠기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가슴에이는 곡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고 바다도 격랑을 일으켰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었다.

민물배야 민물수 없는 이 사실앞에 사람들은 금시 태양이 거지고 하늘이 무너지는듯싶은 슬픔의 격정으로 오열을 퍼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받들고 따르며 모진 역경도 과감히 뚫고 헤쳐온 우리 인민이 절절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쏟아지는 눈물로 포석을 적시고있다.

조국의 방심초소마다에서, 권길지하막장과 철의 기지, 협동농장에서, 과학연구기관과 학교들에서 전국의 인민군장병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지식인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목매며 부르며 경건히 추모하고있다.

지나거나 뵈고싶고 언제나 곁에 안고싶던 어버이장군님, 오늘도 오시려나 기다리며 순간도 잊은적 없던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니 너무도 애통하여 온 나라 전체 군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를 등을 깔없이 찾았고있다.

수도의 민수대연덕이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잃은 인민군장병들과 평양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 인민무력부와 인민보안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평양시당위원회를 비롯한 당, 무력, 정전, 경제기관 일꾼들, 만수대지구 건설자들, 시내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만수대연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업원을 꽃피우시려 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고 온갖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 못 견디고 그리워 각계층 인민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다.

삼천리에서 몸을 싣고온 항일혁명투사 황순희동지는 대들우에 쓰러지며 오열을 퍼치였다.

어버이장군님, 하늘같은 혁명업적을 쌓으신 장군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시어 지금 인민들이 여기로 달려옵니다.

혁명의 1세대인 우리들이 있었으면서도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는 조건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였기에 우리 장군님의 동상을 건립하지 못한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흐느끼는 투사의 절절한 웨침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하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동지적사랑과 각별한 진심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신 진화의 로병들과 일군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이 벌여지는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난 영웅들, 근로자들 그리고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과 청년동맹원들, 소년단원들도 만수대연덕으로 피눈물을 뿌리며 오르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보안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여러곳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도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중구역,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랑평구역, 형제산구역, 삼석구역, 사동구역에서 달려온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형언할수 없는 상심의 아픔을 안고 비애의 눈물을 쏟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지막 현지지도를 받은 광복지구사업중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쳤다.

그처럼 정력적인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을 뵈온것이 엇그제인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믿을수 없다고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하며 일어설줄 몰랐다.

일터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상업중심을 꾸려놓은것이 너무도 만족하시어 이제는 마음이 열만다 풀린다고 하시며 우리들은 너무나 기뻐 어버이장군님의 웃자락에 매여달렸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 인민만이 딱 처 있다는 것만은 알고있으면서도 장군님의 건강이 어느 정도였는지 꿈에도 알지 못한 저희들이 무슨 전사이며 자식이란 말입니까.

이 세상의 온갖 풍상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달려신 어버이장군님의 고생을 생각할수록 가슴저려와 못 견디겠습니까.

이들의 눈물에는 젖은 목숨과 울음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개신청년공원유치장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여러차례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을 정녕 잊을수 없다고 애절한 심정을 퍼지였다.

류달리 추워진 지난 4일 마지막으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우리들이 좋은 날도 하찮은 날도 보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겨두시고 이렇게 가시였으니 하느님 무심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목매며 부르는 인민들의 애절한 웨침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모자이크벽화들을 모신 수도의 곳곳과 김일성광장, 개신광장 등에서 울려넘어 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리들 꽃송이와 꽃대발을 진정하며 오열을 퍼치는 시민들속에는 머리에 흰 땋기를 드러운 여성들도 많았다.

가사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창작한 시인을 지평이에 의지하여 광장으로 나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님 계절 편 푸르지만 보이던 하늘이 오늘은 전혀 보이지 않



가사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창작한 시인을 지평이에 의지하여 광장으로 나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님 계절 편 푸르지만 보이던 하늘이 오늘은 전혀 보이지 않

[조선중앙통신]